東洋學 第90輯(2023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한국고고학에서 철학적 개념의 검토*

공 헌 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고고학계의 연구에 있어서 나타난 철학적 해석 및 적용들을 살피고, 이를 철학의 객관적 입장에 견주어 비판한 뒤,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의 고고학계에서는 유구나 유물들을 조명할 때 철학 및 이데올로기적 방식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들은 철학 연구자들의 객관적 비판 앞에 직면할 수 있으며, 학문 간 괴리(gap) 때문에 난제(難題)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서 철학에 대해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고, 이를 통해 고고학과 철학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지철학(意志哲學)'이 그 중요한 접점의 가능성임을 밝혔다. 그 예로는 첫째, '철학적 지층론'을 통한 연구로서 고고학적 층위가 갖는 의지성(意志性)이다. 둘째, 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들에서 드러난 생에의 의지, 위세품에서 드러난 엘리트적 의지, 이기적 유전자를 따른 집단의 이기성 그리고 의례적 실천에서 드러나는 권력에의 의지 등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의지철학'은 고고학과 철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 철학적 고고학, 철학적 지층론, 표상과 의지, 범주, 기호학

▎목　　차▕

Ⅰ. 머리말
Ⅱ. 고고학에 대한 철학적 해석
Ⅲ. 철학적 검토
Ⅳ. 비판적 수렴
Ⅴ. 맺음말

* 본 연구는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년 8월)"이다. 이 논문을 약간 수정하여 여기에 게재한다.
**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졸업생 / konghunbai@naver.com

Ⅰ. 머리말

한국고고학계의 연구에 있어서 한 흐름은 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들을 대할 때 철학을 활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해외 학계의 주요 흐름에도 닿아 있다. 이런 연구들은 기호화 및 범주적 접근, 사회진화론적 접근에 대한 비판, 이데올로기적 해석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의 객관적 비판 앞에 직면해야 할 만한 난제(難題)가 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間) 학문의 융복합적 실행에 있어서는 접점을 찾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한국고고학에서의 연구 성과물들을 비판할 때, 범주화의 이론은 철학자들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명확한 적용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고고학적 해석에 있어서 그 근거가 약화된다. 그리고 기호학으로 유구 및 유물들을 조명할 때에는 특수성 및 보편성이 있어 일반화할 수 없는 이론적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진화론적 접근에 대한 비판은 학문적 통전성에 있어서 이미 서구 학계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을 만한 경향을 띤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경우에는 고구려 벽화고분에서의 유교적 조명이 인상적이었지만 그 유교가 갖는 포괄적 성격 때문에 벽화만으로 그 사회의 성격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동・서양철학에서 나타났던 특성들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한국고고학계의 유구 및 유물들을 조명하려 한다. 그런 다음 비판적으로 수렴하여 철학적 대안 한 가지를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고고학계의 연구에 있어서 나타난 철학적 해석 및 적용들을 살피고, 이를 철학의 객관적 입장에 견주어 비판한 뒤,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Ⅱ. 고고학에 대한 철학적 해석

1. 기호화 및 범주적 접근

고고학에 있어서의 한 초점은 기호학의 관점에서 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들을 조명한 데 있다. 기호는 상징과도 연관되는데 그 대표적 학자의 한 사람은 이안 호더(Ian Hodder)이다. 호더에 따르면,[1] 공간구성에는 상징적 의미, 대칭적 구성(깨끗함/더러움, 남성/여성, 삶/사망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의 고고학계에서도 반영된다.[2]

그리고 다른 하나의 흐름은 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들에 대해 '철학적 범주(Kategorie)'[3]로 조명하는 데 있

1) Hodder, Ian, *Symbols in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212-229.
2) 김종일, 「한국 선사시대 여성과 여성성」, 『한국고고학보』 78, 2011, 10~11쪽.
3)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를 뜻한다. 철학에 있어서는 사물의 개념을 분류할 때,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유개념(類槪念)을 쓰는데, 그 분류의 기준과 구체적 분류 내용은 철학자들마다 다르다.

다. 이 연구는 기존의 고고학이 갖는 형식분류의 방법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고, 유물을 인지하는 한 방법으로 제한하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한 데 그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범주의 이론은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근대의 임마누엘 칸트, 비트겐슈타인적 언어철학, 현대의 분석철학, 구조주의, 현상학, 미셸 푸코의 철학 등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면서 기호체계 안에서 언어적 의미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기의(signifie)'[4]와 '기표(signifiant)'[5] 등을 사용하여 기호의 언어적 가치에 주목한다. 그래서 고고학에 대한 철학적 범주화는 환유적 연쇄(metonymic chain) 또는 연사적 연쇄(syntagmatic chain)를 실행하여 상호연관의 기호(sign)를 주체에게 수여해 준다.[6]

이런 흐름은 기호학과도 연관되는데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퍼스(C. S. Peirce)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의례적 실천'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지석묘를 조명함에 있어서 언어적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그러면서 지석묘에 대해 교류나 전파, 이주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축조 자체가 '의례적 실천'에 연관되었음을 밝힌다.[7] 기호 및 실천이론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연구 도구'인데, 부르디외(P. Bourdieu)의 실천 이론과 벨(C. Bell)의 의례 이론 그리고 퍼스(C. S. Peirce)의 관점(semiosis)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8] 그런데 소쉬르의 관점은 언어-구조적 특성이 부각되었지만 퍼스의 관점은 비(非)언어적 대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시각에 기인하기 때문에[9] 소쉬르보다 좀 더 발전된 이론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는 기호학이 활용된 '의례적 실천'에 연관된다.

2. 사회진화론적 해석

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점은 이채롭지 않으며 서구 고고학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를 들면[10]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조명한 것인데 이 주장은 이원론적(二元論的) 도식화를 반대한 데 있다. 즉, 제주도의 역사시대는 한반도의 역사시대보다 늦게 전개되고, 선사시대의 문화가 지속되면서 외부문물의 유입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사회진화론적 담론에서 조명한다. 이

---

4)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현되는 것들.

5)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外的) 형식이다. '기표(記標)와 기의(記意)'에서, '기표'는 기호의 지각 가능하고 전달 가능한 물질적 부분이다. 이것은 소리일 수도 있고, 표기일 수도 있으며, 단어를 이루는 표기의 집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의'는 독자나 청자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기호의 개념을 뜻한다. 예를 들면, '존재'라는 문자 자체는 기표이고, 그 '존재'라는 문자의 의미 또는 그 문자를 읽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기의'이다.

6) 김종일, 「고고학적 범주화의 철학적 탐구」, 『고고학』 7: 1, 2008, 61쪽. ① 국어학에 있어서의 환유(換喩)는 사물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 오는 수사(修辭, rhetoric) 또는 비유를 뜻하는데, 여기서의 '환유적 연쇄'는 각각의 낱말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기호이다. ② 연사(撚絲)란, 연속된 섬유의 실 또는 방적사에 꼬임을 더 주거나 두 올 이상의 실을 합하여 꼬임을 주는 일 또는 '꼬임을 준 실'을 뜻하는데, 여기서의 '연사적 연쇄'는 각각의 낱말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기호이다. ③ 철학에서의 '주체'는 대상을 인식하는 인간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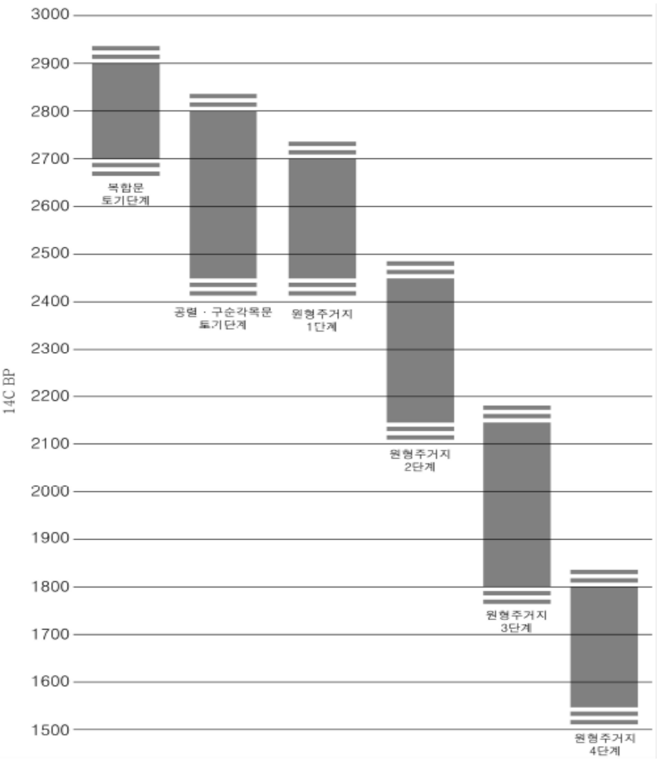
7) 송호인, 「묘역부가지석묘: 청동기시대의 의례·상징 매체」,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8) 위의 논문, 2쪽.

9) 위의 논문, 42쪽.

10) 박경민, 「섬 공동체 변동의 고고학적 연구: 제주도 선사취락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는 근대의 서구적 편견을 벗겨내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분명 제주도에서의 외부문물 유입은 다반사였지만 이를 해석하는 방식은 이원론적 도식화가 아니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 의의(意義)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물질문화에도 층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그림 1).



〈그림 1〉 각 단계의 시간적 범위(박경민 2020: 144)

제주도와 같은 섬은 한반도에 의해 점령되었지만 한반도와는 이채로울 수 있으며, 각지의 유물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한 문화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제주도는 그 나름의 공동체적 정체성이 있다. 그리고 제주도를 조명함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이원론적 대칭구조를 극복해야 하는 데 있다.[11] 쉽게 말해 수렵채집 사회 vs 농경사회, 평등사회 vs 계층사회 등으로의 도식화보다는 다차원적 권력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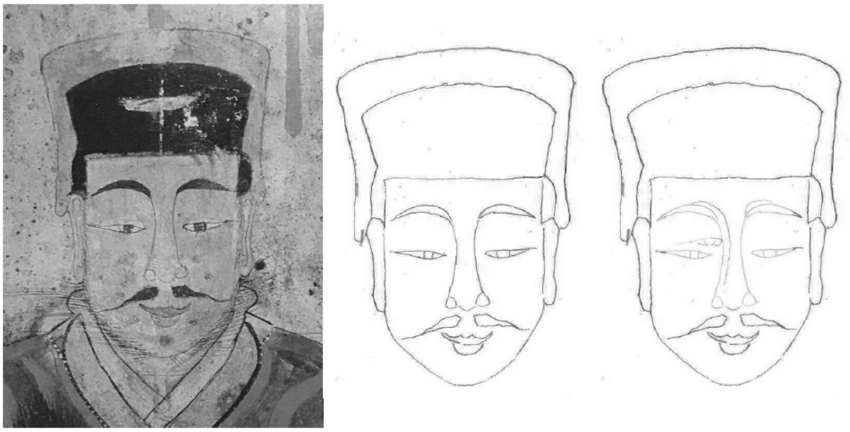
사회진화론을 비판할 만한 다른 하나의 주제로는 서구 사회의 선입견이 될 수도 있었던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데 있기도 하다. 일례로 공동체를 조명할 때,[13] 그 이론적 기반으로 헤겔, 마르크스, 엥겔스 등을 포괄적으로 인용하면서 인식론적 접근과 관계론적 접근에 주목한다.[14]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데 있다. 이런 연구의 결과로 다른 맥락적 접근을 주장하는데 '상징 또는 상징체계' 또는 '상징구조'에서 비롯된 특성을 반영한다.[15] 즉, 공간구조가 갖는 상징성에 주목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사회학보다는 기호학이나 철학적 맥락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

11) 박경민, 「사회진화담론과 이원론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무문토기시대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111, 2021, 39~69쪽.
12) 위의 논문, 53~56쪽.
13) 김종일,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고학』 5: 2, 2006, 57~69쪽.
14) 위의 논문, 63쪽.
15) 위의 논문, 65~66쪽.

3. 이데올로기적 해석

한국의 고고학계에 있어서의 한 예로는 ‘유교이념’을 주제로 한 연구가 있다.[16] 이 논문은 고구려의 고분벽화 연구에서 유교적 요소에 주목한다. 물론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불교적 요소도 소개하지만 특별히 벽화고분에 나타난 몸의 표현방식을 유교이념에 연관 짓는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신앙 및 사유(思惟)는 ‘계세사상(繼世思想)’,[17] 도교 그리고 불교이다.[18] 즉, 유교적(儒教的) 의미는 후기의 것이거나 도교나 불교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물론 연구자도 이 내용을 아는 듯하다.[19] 그러나 그는 유교적 특성도 중요시 했다. 그는 안악 3호분의 벽화에 주목한다. 이 그림은 세 번 이상 수정되었기 때문에 후대의 요소가 반영된 변형된 모습이라는 주장이다.[20] 즉, “수정된 안악 3호분 묘주의 초상화는 그 당시 동아시아유교의 전통에서 바람직한 상으로 여겨지던 관후인자(寬厚仁慈[寬厚長者])한 인상을 주고 있다.”[21] 그래서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유교적 요소의 반영으로 여긴다.



〈그림 2〉 안악 3호분 묘주 초상화(우정연 2018: 138)

이데올로기적 논문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경향은 페미니즘과 젠더(gender)의 관점에서 고고학을 조명하는 데 있다.[22] 이와 같은 논문은 영・미권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고고학의 한 흐름을 잘 반영한다. 그리고

---

16) 우정연,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의 몸과 체화: 유교 문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111, 2018, 109~145쪽.
17) 현세(現世)와 내세(來世)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세계라 여기는 사상 또는 신앙(信仰). 전호태(2000)의 책을 따르면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종교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초기의 그림들은 계세사상(繼世思想)이 발달되어 있고, 영혼불멸(靈魂不滅)적으로 사고(思考)하였다.
18)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0.
19) 우정연, 앞의 논문, 2018, 132~135쪽.
20) 우정연, 앞의 논문, 2018, 138~139쪽.
21) 우정연, 앞의 논문, 2018, 138쪽.
22) 우정연, 「영미 젠더고고학의 최신 동향: 체화(embodiment)와 성적 관행(sexuality)을 중심으로」, 『漢江考古』 4, 2010, 27~46쪽.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사례도 있다.[23] 예를 들면 기호적(記號的) 관점에 주목하는 연구이다.[24] 이 논문은 기호학이나 상징적 의미와 무관하지 않은데 한국의 유구 및 유물들에서 드러난 여성적 의미(女性性)를 보여준다.[25]

Ⅲ. 철학적 검토

1. 범주 및 인식론[26]적 검토

'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의 한 답변은 '범주(範疇)'에 있었다. 그래서 전통의 철학자들이 범주를 어떻게 분류하고 사용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語)을 류(類)와 종(種)[27]으로 구분하고, 그 최고의 '류'를 범주로 여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에 있어서 10가지로 범주화 했다.[28] 그러나 칸트는 '물 자체'를 미지의 'X'로 규정하여 표상의 이면에 물 자체가 있고, 표상(表象)[29]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범주화가 필요한데 그는 크게 12개의 범주로 구성했다.[30] 반면 과학철학자 와잇헤드는 범주화의 류를 47개로 구분한다.[31] 그래서 철학적 범주화에는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하이덱거는 전통의 범주 개념을 비판하면서 실존범주/실존주(Existentialen)를 제시했다.[32] 특히 하이덱거의 존재론을 따르면, '사방세계(Weltgevierte)'[33]가 중요한데 사방세계는 형이상학적 영

---

23) 김종일, 「한국 선사시대 여성과 여성성」, 『한국고고학보』 78, 2011, 5~28쪽.

24) 위의 논문, 10~11쪽.

25) 위의 논문, 13~22쪽.

26) 인식론(epistemology)이란, 인간의 인식 및 지식의 기원, 구조, 범위, 방법 등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독일어로 'Erkenntnistheorie'가 인상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이다. 쉽게 설명하면, 지식의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소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질문 등이 인식론적 물음이다.

27) 류와 종은 위계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개(犬)의 각각은 개체이고, 이와 같은 개체들을 묶으면 종(種)이 된다. 그리고 종보다 위에 있는 분류단위는 류(類)가 된다(포유류). 그리고 '류'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류가 범주(範疇)이다.

28) Aristoteles(저), 김진성(역), 『범주들, 명제에 관하여』, 서울: 이제이북스, 2005, 25~86쪽.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를 구분함에 있어서 1개의 실체와 9개의 속성으로 나눈다. 즉, 1. 실체: 1-① 성질 1-② 양 1-③ 관계 1-④ 장소 1-⑤ 시간 1-⑥ 능동 1-⑦ 수동 1-⑧ 소유 1-⑨ 자세이다.

29) 표상(Vorstellung)이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뜻하는데 일명 '세계'가 해당된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그의 박사학위 논문 「충분 근거률의 네 가지 뿌리(또는 충분 이이율의 네 가지 뿌리)」에서 세계나 주체가 인식하는 대상에는 그것을 떠받치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성적(理性的)'인데, 일명 인과율이기도 하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런 이성적 인식에 반대하여 겉으로 드러난 표상보다 그 표상의 이면에 있는 의지(意志)를 중요하게 여긴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을 비판한 철학자이다. 임마누엘 칸트 역시 표상철학자로 볼 수 있는데, 칸트 역시 표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성(理性) 또는 오성(悟性)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칸트의 철학에서도 표상의 이면에는 물 자체(X)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칸트의 물 자체는 비슷한 개념이다.

30) Kant, I.,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56, pp.115-125. 칸트의 범주는 양(단일성, 다수성, 전체성), 질(실제성, 부정성, 제한성), 관계(실체와 속성, 원인과 결과, 상호성), 양상(가능성, 현실성, 필연성)이다.

31) Whitehead, A. N.,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pp.20-28, 82-95. 와잇헤드의 범주는 1. 궁극자의 범주: 3개, 2. 현존의 범주: 8개, 3. 설명의 범주: 27개, 4. 범주의 제약: 9개이다.

32) Heidegger, M., *Sein und Zeit,*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77, p.44, 54, 64, 148. 박찬국에 따르면,

역도 포함되는 존재론으로서 칸트적 표상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범주화 이론으로 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들을 분류하거나 조망(照望)할 때는 누구의 범주를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이론적 근거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주제로는 주체(예를 들면 연구자)가 고고학의 유물 및 유구들을 대할 때 '어떻게 인식하며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따라 나온다. 이런 주제는 '어떻게 아는가' 또는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등의 문제에 연관된다. 이에 대해 지성인들이 인지해 왔던 방식의 예로는 칸트의 철학이나 쇼펜하우어의 의지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철학적 접근방식이 설명해 주는 것은 '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들'에 대해 이면(裏面)의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마야의 너울(Schleier des Maja)[34]일 뿐임을 밝혀 줄 것이다.[35] 그래서 고고학의 형식분류나 통계 또는 분포권 등을 통한 접근방식은 주체에게 표상 이면의 의지를 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 준다.

철학적 전통에 있어서 표상(表象)을 인식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그리고 인식의 방법은 감각의 소여(Gegeben)[36]성 또는 이성이다. 르네 데카르트로부터 실행된 인식론(認識論)은 기본적으로 회의론적(懷疑論的)인데 '생각하는 나'와 '의심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기초에서 출발한다(*Cogito ergo sum*).[37] 데카르트는 감각보다는 이성의 명증에 주목한다. 그는 『방법서설』에서 이성의 명증 이외에는 결코 사물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38] 이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이 이성적 증명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에는 신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는 임마누엘 칸트도 일정 부분의 동질성이 있지만,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인간의 감각에 의해 주어진 것을 감성이 수용한다고 여긴다. 칸트에 의하면 주체는 감성을 통해 감각자료를 받아들인 것과 지성(Verstand, 悟性, Understanding)의 범주와의 결합으로 '자연'의 개념이 도출되고(범주의 연역,[39] 統覺의 선험적 통일성[40]), 이에 따라 자연과학이 가능해지지만 이것은 물 자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실존범주는 『존재와 시간』에서 논의되는 "세계-내-존재, 심정성, 이해, 말, 우려, 퇴락, 양심, 결의성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3, 26~27쪽).

33) '하늘, 땅, 신적인 것, 죽을 자들(인간)'을 뜻하는데, 동양의 '天, 地, 人' 개념과 닮았다. 즉, 동양적 개념에 신(*Deos*)이 추가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Heidegger, M., *Vorträge und Aufsätze*,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2000, pp.153-161, 175-182). 그러나 이 책에서는 'Weltgevierte'가 아니라 'Geviert'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어로 옮겨지면서 한국의 철학계에서 'Weltgevierte'로 받아들인 듯하다.

34) 여기서의 '마야의 너울'은 일종의 커튼(curtain)과 비슷한데, 커튼 뒤의 상태는 알 수 없지만 그 커튼을 걷어내면 그 뒤의 사물이 보인다. 그래서 마야의 너울이란, 표상을 빗대는 것으로서 그 이면의 사태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장막과 비슷한 개념이다.

35) 이서규, 「쇼펜하우어의 표상개념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88, 2003, 235쪽.

36) 감각의 소여는 감각의 주어짐을 뜻한다.

37) 르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나'가 성립된다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있게 된다.

38) Descartes, R.(저), 김종호(역), 『방법서설』, 서울: 을유문화사, 1995, 367~373쪽.

39) '감성과 지성사이의 일치'를 뜻한다.

40) 통각은 의식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통각들은 선험적으로 통일된다. 이는 종합의 문제인데, 후대의 철학자들은 이를 '능동적 종합'으로 불렀다. 이는 들뢰즈의 『칸트의 비판철학』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논의된다: Deleuze, Gilles(저), 서동욱(역), 『칸트의 비판철학』, 서울: 민음사, 2006.

해당된다. 즉, 주체에게 표상된 것이다.

『순수이성비판』은 그 책의 제목처럼 이성비판인데, 그 이성의 대상은 이념(영혼, 세계, 신)이고, 이와 같은 영역들에 대한 철학적 해명들은 형이상학에 해당된다. 그러나 형이상학의 문제를 지성에 의거하여 해명하려고 했던 과거의 철학들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칸트에 따르면,[41] 이성의 영역에서 설명해 왔던 종래의 영혼 개념은 오류 추리[42]를 통해 비판하고, 전통의 세계 개념에 대해서는 '이율배반'[43]을 통해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신 존재 증명'의 이론들은 파괴했다. 그러나 칸트는 이에 대해 답을 주지 않고(不可知論), 문제를 던진 셈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실천이성비판』에서 답을 하는데, 그 이성의 문제에 대한 답을 도덕에서 얻는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체계의 건립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비판이었다. 순수이성비판의 목표는 이성비판이었지만 그에 앞서 감성, 상상력, 지성의 문제를 깊게 다루었고, 이를 통해 자연과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의 철학에 의해 구성된 '자연'은 표상이지, 물 자체가 아니었다. 즉, 물 자체의 세계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다.

칸트가 물 자체를 미지의 'X'로 두었다면 쇼펜하우어는 그 미지의 'X'에 대해 답을 한 셈인데 그 'X'는 의지(意志)이다.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의지는 인간 주체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동물, 식물, 심지어는 바위와 같은 무생물에게도 해당된다. 즉, 세계를 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의지이지만 지성적 명증이나 선험적 통각(先驗的 統覺)[44]은 표상에 대한 설명일 뿐 의지를 증명한 것이 아니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니이체에게도 전수되는데 니이체는 칸트를 독단주의자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성적 명증의 불합리들이나 수학적 지식 또는 논리적 정식화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45] 니이체는 문헌학자로 출발하여 철학으로 전향했는데 니이체 철학의 한 면모는 정신분석 내지 심리학에 있다(*Morgenröthe*).[46] 즉, 니이체 철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면모는 어떤 사태나 주장 등을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주장들의 내면에 있는 심리를 조명한 데 있다. 예를 들면 "신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주장은 전달자처럼 하는 그(주체)가 자신의 의견을 부각하기 위해 신을 인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주장이나 사태 등에 대해 심리로 보면, 그 말들이 합리적인 듯하지만 실은 그 주장을 하는 주체의 내면이나 상황(심리)과 결별되지 않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나 주체들의 이면에는 심리가 자리하지만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심리는 이해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47] 그렇다면 '고고학의 유구들이나 유물들은 어떻게 인지해야 할까?'

41) Kant, I.,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56, pp.334-650.

42) '이성적 심리학(Rationale psychologie)'이 제시하는 자아와 영혼에 대한 특정한 논증을 일컫는 칸트의 용어인데, '오류(誤謬)'는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뜻한다. 그리고 추리(推理)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함, 또는 어떤 근거를 활용하여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을 뜻한다.

43)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동등한 근거가 성립되면서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두 명제 사이의 관계.

44) 칸트는 직관에 있어서는 각지(各智)의 종합, 상상력에서는 재생(再生)의 종합, 개념에서는 재인(再認)의 종합을 주장한다. 재인의 종합이 통각이다. * 각지: 시·공간 좌표를 잡아주는 것, 재생: 재생해 주는 것, 재인의 종합: 자아가 현상을 종합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컵, TV, 휴대전화 등을 개념화하여 세상을 보는 단계에 이른 것을 뜻하는데, 자아를 통해 세상 모든 것들의 개념이 잡힌다.

45) Nietzsche, Friedrich Wilhelm(저), 강수남(역),『권력에의 의지』, 서울: 청하출판사, 1998, 314~322, 325쪽.

46) Nietzsche, Friedrich Wilhelm(저), 박찬국(역),『아침 놀』, 서울: 책 세상, 2014.

47) "좌우간 이해를 '심리적 과정'으로서는 결코 생각조차 하지 말라! -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혼란시키는 말투이기 때문이다. …(중략)…이해에 대해 특징적 과정들(또한 심리적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뜻에서는 이해는 심리적 과정이 아니다(어떤 고통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토기의 탄착흔에서 음식물을 끓였다는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다. 또한 환호유구를 통해 집단의 경계가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추론들은 정황적 증거에 의한다. 이와 같은 추론이 민족지 조사에서는 달리 이해되기도 했는데, '창'은 무기가 아니라 성 상징(性 象徵)이었음을 밝힌 사례가 있다.[48] 즉, 고고학의 추론들은 유물의 형식분류, 통계적 분포, 자연과학적 분석 등에 의한 합리적 추론들인데, 의례 행위에서 드러날 만한 형이상학적 사유나 원시적 집단무의식 등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호학이 등장했다. 다시 말해 어떤 물질이 의미하는 언어적 상징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기호학 역시 그 학문의 발전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높아진 단계의 적용이 필요한 듯하다. 즉, 소쉬르 단계에 머물 수는 없다.

기호학이나 언어학 등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을 충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에는 아주 철저한 명확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징, 전승, 민담, 흔적, 역사의 기록물들 등은 언어철학적 명료성을 만족시키지 못할 만한 한계가 있다.[49] 그러나 특이하게도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오해 중 한 가지는 그의 철학이 등장한 이후 비교적 초기에 나타났던 것인데, 그를 '논리실증주의자'로 여겼던 점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신비주의자에 가까웠다.[50] 비트겐슈타인은 무엇보다도 종교문제를 중요시 했는데, 합리적 이성을 따른 종교비판이나 원주민들의 의례 행위 등에 대한 합리적 비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다.[51] 비트겐슈타인이 살았던 시대는 근・현대적 사유가 만연했지만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포스트모던적으로도 분류될 만한 철학자였다.[52]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종교는 본능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성의 명증을 따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즉, 종교 문법은 명제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반(反) 이성주의 철학자로도 분류될 만한 쇼펜하우어 역시 종교적 관상이나 아시아(힌두교)적 고행에 대해 긍정한다.[53] 니이체 역시 인도(India)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다.[54] 쇼펜하우어와 니이체는 '진리(眞理)'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데,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근거율은 진리가 아니다.[55] 이는 스콜라 식 논법에 대한 비판이

감각의 증감, 어떤 곡조나 문장을 들음: 심리적 과정들)": Wittgenstein, Ludwig(저), 이영철(역), 『철학적 탐구』, 서울: 서광사, 2002, 154. * 이 숫자는 책의 페이지가 아니라 명제의 번호이다.

48) 이안 호더는 물질(유물)의 용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의 민족지 사례를 든다. 그중 한 예로 '창'을 들었는데, 보통 창은 武器로서의 기능으로 인지하기 십상이었다. 실지로 전통 고고학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안 호더의 민족지 사례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창이 무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사회적 불만에 연관된 상징이었음을 밝혀냈다. 즉,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Tugen, Njemps, Pokot 등)에서는 젊은 청년 남성들이 장가를 갈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결혼지참금'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사회의 구조상 경제적 이유로 젊은이들의 혼인율이 저하되었고, 그러한 사회적 불만의 상징으로 창이 제작되었음을 밝혔다. 그래서 창은 武器의 상징이 아니라 性에 연관된 상징임을 주장했다: Hodder, Ian, *Symbols in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58-74.

49) 공헌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을 통해 본 부활」, 『한국조직신학논총』 47, 2017, 178~195쪽.

50) 하영미, 「비트겐슈타인의 종교관과 철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24~33쪽.

51) 이영철, 「종교적 믿음과 언어: 비트겐슈타인의 종교관」, 『哲學硏究』 102, 2013, 87~120쪽.

52) 이영철, 「비트겐슈타인과 철학의 새로운 길」, 『哲學』 118, 2014, 111~137쪽.

53) Schopenhauer, Arthur(저), 홍성광(역),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서울: 을유문화사, 2015, 606~608쪽.

54) Nietzsche, Friedrich Wilhelm(저), 앞의 책, 2014, 103~105쪽.

55) Schopenhauer, Arthur(저), 앞의 책, 2015, 88쪽.

기도 한데, 스콜라 철학은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기인한다. 그리고 칸트에 있어서는 '도덕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도덕론 자체가 고고학의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의 어원이 되는 '*Ethos*' 자체가 '관습'을 뜻하는 것으로 어떤 행위들의 반복을 일컫기 때문이다.[56] 즉, 도덕은 '터부'의 변형된 형태 내지 '터부'의 발전된 행태이다.[57] 다시 말해 도덕 이전에 터부가 있었고, 터부가 변하거나 발전하면서 '도덕'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보다 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그래서 도덕의 원본적 동기는 '터부'에 있다.

고고학에서 주로 다루게 될 선사시대에는 원시적 종교 무의식이 바탕을 이룬다. 그리고 기록물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非)역사적이다. 그 시대를 투사(投射)할 기록물로는 신화(神話)가 있다. 신화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이다.[58] 그러나 신화들 역시 기록물이기 때문에 선사시대를 조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족지 사례나 전승 또는 민담 등에 주목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조사자들이 근·현대적 주체들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인간의 투사물(投射物)에 대해 철학화한 사람으로는 포이어바흐가 주목되는데 그는 인간 종교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59] 즉, 포이어바흐 역시 근대적 합리성에 근거하므로 원시적 무의식이나 토템 등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내재화 및 지층론적 검토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고려할 중요한 한 가지는 '지층(地層) 및 유물들의 시대적 층위'이다. 이에 따라 '기호 및 지층론'에 연관된 철학적 연구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들뢰즈와 가타리는 언어학자 옐름슬레우를 "스피노자주의 지질학자"로 부른다.[60] 그들은 옐름슬레우의 언어학을 자신들이 말하는 '철학적 의미에서의 지질학'[61]으로 환원하여 내재적 사유[62]에 편입한다.

옐름슬레우의 기본적 명제는 "랑가쥬[63]는 기호의 체계"라는 것이다.[64] 그는 '기호'를 해독함에 있어서 '기능'에 주목하는데, 이는 '표현'과 '내용'을 주요 요소로 여긴 것이다.[65] 즉, 옐름슬레우의 기호 이론은 형식을 넘어, 실체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그 실체는 다양한 랑그(langue)[66]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이

---

56) 박봉배,「그리스도인과 윤리」,『기독교 윤리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9쪽.
57) '터부'라는 단어의 뜻에 관해서는 Freud, S.(저), 이윤기(역),「토템과 타부」,『종교의 기원』, J. Strachey ed., 서울: 열린책들, 1997, 233~238쪽을 참고하라. '터부'는 금기이다. 금하는 이유들은 크게 두 가지이고 요약하면, 신성한 것들이나 부정한 것들에 해당한다. 즉 신성하든 부정하든 모두 금기시 된다.
58) Bultmann, R. K.(저), 서남동(역),『역사와 종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2쪽.
59) Feuerbach, Ludwig(저), 강대석(역),『종교의 본질에 대하여』, 파주: 한길사, 2006; Feuerbach, Ludwig(저), 강대석(역),『기독교의 본질』, 파주: 한길사, 2008.
60) Deleuze, G.·Guattari, F.(저), 김재인(역),『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새물결, 2001, 92쪽; 김재현,「스피노자주의 지질학자 옐름슬레우」,『人間과 思想』24, 2012, 157쪽.
61) 자연과학적 지질학이 아니라 미셸 푸코의 철학적 고고학과 니이체의 철학적 계보학을 합친 개념이다.
62) 초월적 思惟에 대비되는 사유.
63) 영어로는 'language'인데, (인간의 고유한)언어, 언어기능, 언어활동, (특정한 측면에서 본)언어, 용어.
64) Hjelmslev, L.(저), 김용숙·김혜련(역),『랑가쥬 이론 서설』, 서울: 동문선, 2000, 60쪽.
65) Hjelmslev, L.(저), 앞의 책, 2000, 65쪽.

다.[67] 예를 들면 "I exist, Ich existiere, 나는 존재한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思考)인데, 여기에는 형식이 없는 '사고'에 해당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나 그 '무엇'이 '존재'라는 실체가 된다. 즉, 형식은 독립적이지만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면 내용이 있는 실체가 된다. 쉽게 말해 각 개의 낱말들은 덩어리들처럼 존재하지만 거기에 의미가 부여될 때 실체가 된다. 이와 같은 옐름슬레우의 언어 이론을 들뢰즈와 가타리는 자신의 철학에서 활용한다. 즉, 들뢰즈와 가타리는 옐름슬레우의 '언어학'을 소쉬르 및 후기－소쉬르 학파와 대립시키는데, "내재성의 장"[68]을 기술했다.[69] 이를테면 소쉬르의 언어학은 기의와 기표 간의 종속관계가 있는 데 반해, 옐름슬레우는 표현과 내용에 있어서 '상호전제관계'에서 언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호적(交互的)이 되는데, 이러한 '상호전제관계'를 들뢰즈와 가타리는 내재적이라 여겼다.[70]

옐름슬레우의 언어 및 기호의 이론을 빌린 가타리와 들뢰즈는 "도덕의 지질학"을 등장시키는데, 콜브룩(C. Colebrook)에 의하면, 이 지질학은 역사개념에 연관된다. 그러나 일반적 역사개념과는 대립된다. 즉, 이 지질학은 자연적 지층을 역사화한 것인데, 여기서의 역사는 선(線)이 없으며 의지들이 내재화된 층들 및 들뢰즈와 가타리가 강조하는 공간적 '고원'[71]들이 존재할 따름이다. 즉, 인간의 역사들을 넘는 비(非)유기적 생명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여긴다.[72] 그래서 실증사가 강조되는 고고학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고고학은 실증사의 범주를 넘어, 지질학이나 고생물학, 토양 미세분석, 화분분석, 기후 환경 등의 연구를 실행하기 때문에 간접적 연관성은 있다. 그렇지만 전통의 고고학에 있어서의 분석들은 자연과학을 활용했기 때문에, 설령 들뢰즈와 가타리가 자연과학적 사유를 응용한 철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상성을 극복하기는 힘들 듯하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한 "도덕의 지질학"은 푸코가 주장한 철학적 고고학 개념과 니이체 + 푸코의 '철학적 계보학'의 성과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것이다. 즉, 들뢰즈와 가타리는 옐름슬레우에게서 빌려 온 요소들인 언어학 및 기호학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적 지질학으로의 맥락에 포함한다. 다시 말해 옐름슬레우는 기호학 및 언어학적 연구자이지만 이를 인용한 들뢰즈와 가타리는 지질학적 맥락으로 환원했다. 이 작업은 '지질학적 존재론' 또는 '지질학적 윤리학(정치학)'이 된다. 마치 스피노자가 윤리학을 추구하거나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하학적 공간구성을 따라 증명한 자연(우주)철학처럼 들뢰즈와 가타리는 지질학 또는 지구 또는 자연 등을 철학적 추상성으로 환원한 셈이다. 마치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 철학 논고』가 윤리적 저술로도 인지되듯이,[73] 인간의 이야기들을 넘어선 범주에서의 자연적 정치학 및 자연과학을 응용한

---

66) '랑그와 빠롤'에 있어서 '랑그'는 언어체계나 문법을 뜻하고, '빠롤'은 발음(발화)을 뜻한다.

67) Hjelmslev, L.(저), 앞의 책, 2000, 68, 70~71쪽; 김재현, 앞의 논문, 2012, 159~161쪽.

68) 초월과는 다른 내재적 존재 또는 내재적 사태.

69) Deleuze, Gilles · Guattari, Félix,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pp.242-243.

70) 소쉬르에게는 초월적 '기의'가 존재하여 초월적이고, 옐름슬레우에게는 표현과 내용이 대등하며, 초월적 요소가 없어서 내재적이라 여긴다. 그래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내재론적 증명가인 스피노자를 빌려 옐름슬레우에게 '스피노자주의자'로 지칭했다.

71) 특별한 역사적 순간 또는 시 · 공간을 뜻한다. 그러나 비(非)유기적 생명의 특별한 출현 지점, 즉, 인간에 국한되지 않는 화산폭발이라든가, 지층의 변동, 기후변동 및 인간사에서의 중요한 사건 등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고원'은 공간구성적 개념의 고원에 국한되지 않는 철학적 추상성으로서 은유적 표현 내지 詩的으로 표현된 들뢰즈 철학의 핵심 개념이다.

72) Colebrook, C.(저), 한정헌(역), 『들뢰즈 이해하기』, 파주: 그린비, 2007, 29쪽.

73) 공헌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을 통해 본 신정론 비판」, 『한국조직신학논총』 42, 2015, 52쪽.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윤리학이 추구될 만한 추상성의 철학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자연과학이 응용된 철학 또는 존재론적(지층론적) 추상성이 표현된 철학이 된다.

3. 의지론의 반영

고고학의 유물 및 유구들은 시대의 산물(産物)로서 표상화된 기호이다. 그러나 그 기호의 이면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본 장(章)에서는 유물 및 유구의 사례를 들어 인간의 의지들이 고고학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철학에 연관하여 해명해 보려 한다.

칸트와 쇼펜하우어 철학의 공통적 요소는 '표상(表象)'에 있다. 칸트에 의하면 그 표상의 이면에 물 자체가 있고,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그 표상의 이면에 의지(意志)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고학의 유구나 유물의 이면에 있는 의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일부의 후기과정적 고고학자들은 그 방식의 하나로 기호 및 언어학을 통해 찾으려 한 듯하다. 다시 말해 고고학의 유구를 대할 때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퍼스(C. S. Peirce), 호더(Ian Hodder) 등의 관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방식으로는 칸트의 물 자체나 쇼펜하우어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물 자체와 의지는 근원적이며,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전통의 철학을 따르면, 세계나 궁극적 원인 등을 설명할 때 '일자(一者)'라든가, 신(神), 제1 원인 등의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나 칸트와 쇼펜하우어는 모두 그런 식의 원인들(신, 일자 등)을 부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떠받치는 원인을 '의지'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에 대해 현대의 과학으로는 전자(電子)나 핵(核)을 꼽을 수 있다. 즉, 전자(電子)나 핵(核)이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그 '의지'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 나온다. 물론 쇼펜하우어 시대의 자연과학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고, 쇼펜하우어 역시 그런 식의 전자와 핵을 거론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상화된 물체의 이면에 어떤 '의지'가 존재하는지는 철학에서의 중요 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그 '의지'에 대해 근원적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쇼펜하우어도 인정할 만한 '생(生)에의 의지'에 주목한다. 고고학에서 발굴해 낸 경작유구들이나 수렵 및 토기제작의 흔적들에서는 강한 생존의 의지들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농경생활은 선사나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엘리아데에 의하면,[74] 농경의례는 생명에 관계되며, 식물의 정령에 거주하는 생명의 놀라운 성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즉, 농경노동은 하나의 의례이다. 특별히 농경의례는 인신공희(人身供犧)와도 연관 있다.[75]

의 『논리 · 철학 논고』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주된 주제는 "말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구적 선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윤리와는 무관한 듯 보이겠지만 비트겐슈타인과 가장 친했던 오스트리아인들은 비트겐슈타인의 그 책이 윤리적 저술이라고 믿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책의 내용만 봐서는 윤리와는 무관한 것처럼도 여겨지는데 깊게 들여다보면 윤리도 드러난다. 즉, 스피노자의 『기하학적 질서로 논증된 윤리학(에티카)』의 경우도 그 내용이나 제목만 보아서는 수학적이거나 이성적 또는 합리적 추론에 의한 증명서와 같겠지만 그 안에 윤리나 가치 등이 포함된다.

74) Eliade, Mircea,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lated by Rosemary Shee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8, pp.331-361.

75) Ibid., pp.341-347.

물론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운다든가, 아니면 실지로 사람을 희생시킨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농경적 의례는 식물의 생장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功)을 들인 것이다.

'생에의 의지'를 보여 줄 만한 다른 사례는 반구대 암각화에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이 반영되는데, 수렵의 면모들을 잘 보여 준다.[76] 그리고 경산 임당동의 고총에서는 각종 동·식물 및 어류 등이 매장된 것으로 보아 축산(畜産) 및 수렵(狩獵)의 흔적이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이 고고학의 유구들은 생활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생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임당 고총의 동·식물 및 어류(김대욱 2014: 227)

편년	유구명	종류	동물		어류		패류	기타
			포유류	조류	민물	바다		
5세기 1/4분기	조CⅡ-2	부			다수의 생선			
	조CⅡ-1	부			3마리분의 어류			
	조EⅢ-2	부		꿩658, 두루미과5, 조류5	잉어8	상어류29, 방어1,	패각1	동정불가11, 볍씨
	임7A	부	동물			상어	조가비	
5세기 2/4분기	임7B	부	동물		잉어	상어, 방어, 참돔, 복어	조개류[22]	
	조EⅢ-3	부	개1	꿩66		상어1	피뿔고둥2, 벌레뱀고둥1	동정불가1
	조EⅢ-8	주		닭[23]				
5세기 3/4분기	조EⅠ-1	주					소라[24]	
		부			어류			
	조CⅠ-1	부	멧돼지				패각류	
	조CⅠ-2	부						
5세기 4/4분기	임2호		돼지[25]					
	임5B1	부	가축				패각	
	임5B2	주			생선			
		부	가축		생선			
	임5C		멧돼지				조개, 소라, 고둥	
	임6B1		말[26]					
6세기 1/4분기	조EⅡ-3	부	멧돼지					
	임6A	단곽			생선		패각	
	조EⅠ-2	부					소라[27]	

76) 이하우, 「한국 선사암각화의 제의표현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38~47쪽.

그러나 고고학의 유구에서 드러난 다른 의지들도 보인다. 예를 들면 순장(殉葬)이다.77) 이 경우에는 '생에의 의지'와는 상반된 듯한 의례적 특성이 보인다. 왜냐하면 무덤의 주 피장자에게는 내세를 위한 의례 행위이겠지만 주 피장자를 위해 무덤에 희생되는 자에게는 '생에의 의지'를 포기해야 할 만한 행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의지에 연관된 듯하다. 도킨스에 따르면,78) 동물개체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집단의 이기성(이기적 유전자)에 기인한다. 즉, 하나의 동물개체에게는 희생이지만 집단에게는 종(種)의 유지를 위한 선택이 되는데, 이는 DNA의 설계에 의한 이기성이다. 그래서 희생 역시 집단을 위한 이기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인간의 순장이 도킨스의 DNA이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순장이 집단의 생물학적 개체 유지를 위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관념적으로 환원하면 경제적 이유와는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그 집단의 추상성에 연관된다. 즉, 선사나 고대에 있어서의 집단이기성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선사나 고대에는 지배자의 존재(威嚴)가 곧 집단의 영예(榮譽)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순장도 집단을 위한 이기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사례가 나타났는데, 가족순장(家族殉葬)이다.79) 가족순장의 경우에는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집단의 생계(경제)적 유지를 위한 것도 아닌 듯하고, 국가사회의 왕과 같은 절대권력이 뒷받침되는 것도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경산 임당동에서 드러난 가족순장의 사례들은 '신라'라는 국가사회에 종속되어 실행된 의례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80)

다음으로 살필 것은 고고학의 유구들에서 드러나는 많은 위세품들이다. 위세품들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성을 갖는다. 엘리아데에 따르면,81) 엘리트신화 이론이 있다. 엘리트는 풍부한 독창성과 난해성, 이해하기 힘든 의례를 통해 현세의 진부함에서의 탈출을 표방한다. 엘리트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작품과 그 난해성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미지의 세계와 인간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려는 욕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엘리트들은 그러한 '입문식'을 거침으로써 모든 예술 언어의 파괴에 내재된 숨은 의미를 이해할 것을 꿈꾼다. 여수 평여동 산본 유적에서는 다량의 옥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엘리트성을 보여준다.82) 그리하여 고고학의 유구나 유물들은 다양한 의지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들이 보여 준 의지들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보편성도 있는데, 토기의 제작이나 수렵 및 어로, 농경 행위 등에서 유추되는 '생에의 의지', 자연과학(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드러난 동·식물집단의 이기적 의지 그리고 각종 위세품들이 드러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엘리트들의 의지 등 다양한 의지들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지들이 투사(投射)된 표상(表象)들이 곧 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들이라 할 수 있다.

---

77) 김대욱, 「임당 고총의 축조와 그 장제」,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198~221쪽.
78) Dawkins, Clinton Richard(저), 홍영남·이상임(역),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2010, 39~46쪽.
79) 김대욱, 앞의 논문, 2014, 216~219쪽.
80) 학계의 일반적 說에 의하면, 경산 임당동은 고대의 '압독국(押督國)'으로 이해된다. 많은 유적들이 나온 인구밀집지역의 하나인데, 신라에 병합되었지만 경주의 고분(적석목곽분)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띤다.
81) Eliade, Mircea, *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85, pp. 46-50.
82) 이영문 외, 『여수 평여동 산본 지석묘』, 전남대학교박물관, 1993.

그리고 표상화된 고고학적 유구들의 이면에 있던 의지들 중에는 '의례와 실천'이 있다.[83] 이러한 의례와 실천들에는 분묘의 축조, 제의(祭儀), 권력 승계[84] 등 다양한 행태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즉, 고고학의 유구들은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이면의 다양한 의지들이 반영된 시대의 산물이다. 고고학의 유구들에서 보여주는 의례의 흔적들은 매우 다양하다.[85] 즉, 농경지, 분묘, 환호 등 선사나 고대시대에 있어서의 '의례'는 일상적이었다.

의례연구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학자는 게넵이다.[86] 그에 따르면, 의례는 입문적(入門的)이다. 즉, 과거의 인간 사회에서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의례 행위가 있었다. 그러나 의례행위들에는 '터부(taboo)'가 자리하기도 하는데,[87] 그 터부의 기원에는 정신분석적 의미가 있다. 즉, 인간 개인 또는 집단의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원시적인 동시에 지속력이 강한 인류의 본능 및 강박증이라 할 수 있다.[88] 쉽게 말해 본능 행동 또는 욕동 충족의 의지가 있는데, 이는 무의식적이며, 이런 무의식은 개인이나 집단에서도 발현된다. 그래서 의례적 실천의지의 밑바탕에는 인류사회의 집단무의식이 존재한다. 그 무의식은 근대적 합리성이 아니라 행위의 원인이 되는 비(非)이성적 경험에 기반한다.

그래서 고고학의 유구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형식분류, 통계적 분포 파악 등으로는 터부나 원시적 집단무의식을 알기 힘들다. 결국 전통의 고고학이 밝힐 수 있는 분야는 표상(表象)이지, 의지(意志)가 아니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기 과정고고학적 접근이 있는데, 주로 기호학이나 언어학 그리고 철학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기호학이나 철학 그리고 언어학 등을 통한 접근 방식은 유물이나 유구의 외면(表象)을 더 잘 밝혀준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동기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신분석적 추론이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상화된 고고학 유구의 이면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정신분석적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의식(無意識)의 세계는 의식(意識)의 행위들을 추동하는 매우 중요한 동인이기 때문이다.[89]

그렇다면 의례적 실천(또는 의례와 실천)을 추동하던 원시적 무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복합적 답변들은 본 연구의 후속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한 가지의 주제를 제시하려 하는데, '죽음에 대한 불안(내세관)'이다. 고고학 연구에서 드러나는 그 많은 분묘들은 모두 '죽음 의례(funeral rites)'에 연관된다. 이 죽음의례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사태이다. 물론 지역이나 시대 그리고 종교에 따라 행태나 사유(思惟)는 다르지만 '죽음관'이 반영되었다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것이 의례행위에서는 어떻게 표상되었으며, 마침내 그것

83) 김종일, 「경관, 의례, 예술」,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과천: 진인진, 2021, 172쪽; 송호인, 「묘역부가지석묘: 청동기시대의 의례 · 상징 매체」,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30~43쪽.
84) 이상길, 「제사와 권력의 발생」,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2006, 132쪽; 이상길, 「祭祀를 통해 본 權力의 發生」,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편, 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 3, 서울: 사회평론, 2007, 179~222쪽.
85) 李相吉,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硏究」,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86) Gennep, Arnold(저), 全京秀(譯), 『通過儀禮』, 서울: 乙酉文化社, 1985.
87) Freud, S.(저), 이윤기(역), 「토템과 타부」, 『종교의 기원』, J. Strachey ed., 서울: 열린책들, 1997, 203~430쪽.
88) 위의 논문, 242, 245쪽.
89) Freud, S.(저), 임홍빈 · 홍혜경(역), 『정신분석 강의』, 파주: 열린책들, 2015, 25, 26~27쪽.

이 어떤 분묘의 형태로 현대인들에게까지 보여주는가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매우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영혼불멸론 및 '계세사상(繼世思想)'이다. 이 '계세신앙'은 고구려 고분벽화 신앙에서도 잘 반영된다.[90] 그러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죽음 의례'라는 의례들에도 종교적 신비(mystery)들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신비(神祕)는 말해질 수 없는 것이다.[91] 그리고 "윤리학과 미학(美學)은 똑같다"[92] 즉, 명제적 표현이 불가능한 진술이다. 쉽게 말해 언어적 명확성은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윤리나 미학 등은 가치(價値)를 드러낸다.[93] 그래서 비(非)논리적이며, 언어적 명확성과는 동떨어진다. 그러나 삶의 문제는 다분히 윤리/도적적이다. 특히 칸트는 도덕론자인데, 인류의 본원적(本原的) 동기를 따를 때, 도덕의 원인은 '터부'에 있다. 그러나 이 '터부'는 관습에 연관되는 것으로서 인식론적 명확성이나 언어철학적 명확성을 담보하는 이성적 명증에 기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명제적 판단(판별)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선사나 고대를 조명할 다른 동기는 도덕이 아닌 '의지'에 있다. 니이체의 철학은 다분히 생(生)철학적이며 의지철학적(意志哲學的)인데, 칸트와는 달리 니이체는 도덕을 폄하한다.[94] 니이체는 도덕을 인간의 심리 또는 사회심리적 기재처럼 이해하는데, 니이체 철학에 있어서의 '도덕은 민중 계급의 자기 합리화'이며, 이것이 지배계급으로 옮겨 갈 때에는 '가축 떼 본능'으로 이용될 만한 유신론적 기재가 된다. 즉, 니이체 철학의 중요한 면모는 '몰 가치적(몰 도덕적)'이며, 의지에 따른 권력과의 연관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을 파괴하고 대지에 충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니이체의 철학은 '생에의 의지'[95]를 반영할 만한 고대 사회의 괴력(怪力)을 표상화한다. 피라밋, 진(秦)나라 시(始) 황제의 능, 모아이 유적 등은 이해하기 힘들 만한 괴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선사나 고대의 웅장한 유적들에 대해서는 칸트 식 도덕론보다 니이체 식 괴력론이 더 설득력 있을 듯하다. 즉, 민중의 자기 합리화나 지배층의 유신론적 도덕으로 표상화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 만한 축조술(築造術)과 권력이 뒷받침된 의지의 산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니이체가 강조한 '힘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를 보여 준 대표적 산물들이라 할 수 있다.

선사나 고대에 있어서의 의례적 실천은 무덤의 축조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죽음관에 연관된 '힘에의 의지'

---

90)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0.

91) "실로 언표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이것은 스스로 드러난다; 그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Wittgenstein, Ludwig(저), 이영철(역), 『논리·철학 논고』, 서울: 천지, 2000, 6.522).

92) 위의 책, 6.421.

93)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세계에는 가치(價値)가 존재하지 않는다(위의 책, 6.41).

94) Nietzsche, Friedrich Wilhelm(저), 김정현(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니체 전집 14』, 서울: 책세상, 2002; Nietzsche, Friedrich Wilhelm(저), 정성호 번역센터(역),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오늘, 1993, 51, 354~355, 356쪽.

95) 원래 '生에의 의지'는 쇼펜하우어에게서 드러나는 것인데, 니이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계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니이체가 쇼펜하우어와 동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금욕을 긍정한 데 비해, 니이체는 사업을 장려했다: "그 소인들은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기심을 가질 권리도 힘도 없다. 그대, 창조자들이여! 그대들의 이기심 속에는 잉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깃들여 있다.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열매를, 그대들의 완전한 사랑을 감싸고 귀여워하고 기르는 것이다.…(중략)…그대들의 사업, 그대들의 의지야말로 그대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거짓된 가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창조자들이여! 그대, 보다 높은 사람들이여! 출산할 때 사람은 앓는 법이며 출산이 끝나면 사람은 불결해진다.…(중략)…창조자들이여! 그대들에게는 불결한 것이 많은데, 그것은 그대들이 어머니가 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Nietzsche, Friedrich Wilhelm(저), 앞의 책, 1993, 359~360쪽).

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지배자 계급의 무덤 축조는 그 기술력에 있어서 매우 전문적이며,[96] 무덤의 축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권력에 의한 노동력 동원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사나 고대 사회의 웅장한 무덤은 그 내세관에 따라 실천(실행)된 의례의 표상화이다. 그리고 그 표상화의 이면에는 계급 사회 또는 국가사회 그리고 '권력에의 의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의례적 실천의 결과물은 무덤으로 표상화 되는데, 그 이면에는 '권력자들의 의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내세관에 연관된 그 의지는 '힘에의 의지'이다. 이 의지는 니이체가 주장한 철학적 의미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 용어에 있어서는 정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의지철학의 측면에서 볼 때 의례적 실천에서 드러난 웅장한 무덤들은 표상화된 기호인데, 그 기호의 이면에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를 때 세계는 표상화되어 있고, 그 표상의 이면에는 물 자체(X) 또는 '의지(意志)'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의지는 근원적이어서 파악이 힘들지만 이 근원적 의지 말고 현실적 의지를 예로 든다면 의례적 실천을 통해 드러난 웅장한 무덤들은 권력에의 의지를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Ⅳ. 비판적 수렴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고학계에서 실행된 철학 및 이념적 연구들에 대해 기호화 및 범주적 접근, 사회진화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 이데올로기적 해석 등으로 구분했다. 이를 한 가지씩 검토해 보면, 첫째, 기호화 이론은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분묘들이 있는데, 그 분묘들은 기본적으로 의례행위에 연관된다. 즉, 분묘들이 의례행위에서는 어떻게 표상되었으며, 마침내 그것이 어떤 형태로 현대인들에게까지 보이는가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매우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죽음관(내세관)'은 영혼불멸론 및 '계세사상(繼世思想)'이다. 이 '계세신앙'은 고구려 고분벽화 신앙에서도 잘 반영된다.[97] 그러나 계세신앙이 반영되었다고 하여 그 모든 분묘들이 고구려처럼 기단식 적석총이거나 평안도나 황해도에서 드러난 형태의 고구려 고분과 같은 무덤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세계도처에 '계세사상' 또는 '계세사상과 닮은' 신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세적 신앙을 가진)그 모든 피장자들을 매장한 분묘들이 고구려와 동질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덤은 그 어떤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적 전유물(記號的 專有物)이 아니다.

기존의 고고학에서 드러난 모순이 여기에 있다. 기호적 접근의 특성은 은유적(隱喩的)인데, "A는 B다" 또는 "위세품은 엘리트적 상징이다"라는 식으로 대입해 왔던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패턴의 오류는 형태가 바뀌어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고구려 식 기단식 적석총은 계세사상 및 영혼불멸론적 신앙의 표상화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 역시 계세사상 및 영혼불멸론적 신앙의 표상이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영혼불멸론이나 계세사상은 무덤의 형태나 지역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

96) 김은경, 「신라 적석목곽묘 상장의례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7쪽.
97)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0.

있는 보편성이 있다. 다시 말해 '영혼불멸론'은 고구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혼불멸론'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만연했지만 그 그리스의 분묘는 고구려 식 記號(형태)가 아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기호학(記號學)으로만 고고학적 유구를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를 듯하다.

둘째, 철학적 범주화는 전술한 것처럼 학자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범주화 이론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흐름까지 있어 그 적합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만일 범주의 이론을 고고학에 접목하려면 명료한 기준과 그 기준의 적합성이 제시되어야 타당한 연구가 될 듯하다.

셋째, 사회진화론으로 한국의 유구 및 유물들을 조명하고, 비판한 것은 이채롭지 않은 주제로서 이미 서구에서는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많이 반성되고 알려진 학계의 통전적 흐름에 닿아 있는 셈이다.

넷째, 이데올로기적 관점 중 관심을 끌 만한 것은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유교적 요소의 발견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포괄적 해석으로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논문에서는 고구려의 벽화 고분에서 화공(畫工)이 수정한 그림에 주목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제유적(提喩的)이다.[98] 그리고 이 논문에서 지적할 또 하나는 유교에 대한 이해이다. 우선『논어(論語)』만 하더라도 공자가 죽은 지 약 700년 뒤에 나왔기 때문에 공자(孔子)가 친히 지은 것으로 확인된 자료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99] 뿐만 아니라 유교는 중국에서 후대에 전승된 유교와 한반도로 건너온 유교 등 다양한 특성이 있다. 특히 조선에서는 유교 안에서도 양명학적 흐름과 주자학적 흐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해석된 유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즉, 유교는 그 폭이 넓다. 물론 그 논문의 연구자도 이러한 흐름을 모르지 않는 듯하다.[100] 그러나 고분벽화의 작은 단서로 고구려 사회 전체를 평가하기는 힘든 면도 있다. 유교 역시 포괄적이면서 그 폭이 넓기 때문에 어떤 유학(儒學)인지에 대해서 단지 그림만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그래서 고고학과 철학이 수렴되려면 철학 연구자들의 객관적 연구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간(間) 학문의 융복합적 실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즉, 고고학자와 철학 연구자들이 만나 대화할 수는 있지만 두 영역이 접점을 찾으려면 상호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고대의 철학적 사유들(내세관)을 잘 활용하면 고대의 분묘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는 있다. 다만 표상화된 유구가 철학을 충족할 만한 근거는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근거의 충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대의 철학이 고고학의 유구들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고고학적 유구들의 적지 않은 것들은 생활상이 반영되어 철학 이념에 연관된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고, 분묘의 축조에 있어서는 철학자가 아닌 기술자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는 선사시대에 있는데, 선사시대는 시기적으로 매우 길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철학을 반영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 그래서 선사시대에 대해서는 철학이 아닌 인류학이나 자연과학적 분석, 의례적 접근, 집단무의식의 파악 등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서 철학만으로 조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여 존재할 만한 것이 있는데 '생(生)에의 의지(意志)'이다. 고고학의 유구 및

98) 국어학에서 제유법(提喩法)은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일컫는데, 대유법(代喩法) 중 하나이다.
99) Küng, H.(저), 정한교(역),『왜 그리스도인 인가』, 왜관: 분도출판사, 1998, 73쪽.
100) 우정연, 앞의 논문, 2018, 134~136쪽.

유물들은 의지가 반영된 것들이기 때문에 '의지철학(意志哲學)'은 선사나 고대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철학적 개념이 될 수 있을 듯하다.[101]

Ⅴ. 맺음말

이상의 연구를 따르면, 한국의 고고학계에서는 유구나 유물들을 조명할 때 철학 및 이데올로기적 방식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들은 철학 연구자들의 객관적 비판 앞에 직면할 수 있으며, 학문 간 괴리(gap) 때문에 난제(難題)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서 철학에 대해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고, 이를 통해 고고학과 철학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지철학(意志哲學)'이 그 중요한 접점의 가능성임을 밝혔다. 그 예로는 첫째, '철학적 지층론'을 통한 연구로서 고고학적 층위가 갖는 의지성(意志性)이다. 둘째, 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들에서 드러난 생에의 의지, 위세품에서 드러난 엘리트적 의지, 이기적 유전자를 따른 집단의 이기성 그리고 의례적 실천에서 드러나는 권력에의 의지 등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의지철학'은 고고학과 철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후속 과제는 2000년대에 들어 서유럽의 '경관고고학'이 소개되면서 유적에서 비롯된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현상학으로 고고학적 경관에 대해 해석하는 데 있다.

101) 고고학적 연구방법 중 한 가지로는 '행위-주체 이론'도 있다(우정연,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사회 최대화 전략에 대한 행위이론적 고찰」, 『한국학연구』 65, 2018, 231~279쪽). 그러나 이 논문은 철학적 사유보다는 사회과학이나 경제학적 접근에 더 가깝기 때문에 본 논문의 주제와는 이질적인 면이 있다.

〈참고문헌〉

김종일, 「경관, 의례, 예술」,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과천: 진인진, 2021.
박봉배, 「그리스도인과 윤리」, 박봉배(편), 『기독교 윤리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3.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0.
이영문・최인선・정기진, 『여수 평여동 산본 지석묘』, 전남대학교박물관, 1993.

Aristoteles(저), 김진성(역), 『범주들, 명제에 관하여』, 서울: 이제이북스, 2005.
Bultmann, R. K.(저), 서남동(역), 『역사와 종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Colebrook, C.(저), 한정헌(역), 『들뢰즈 이해하기』, 파주: 그린비, 2007.
Dawkins, Clinton Richard(저), 홍영남・이상임(역),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2010.
Deleuze, Gilles(저), 서동욱(역), 『칸트의 비판철학』, 서울: 민음사, 2006.
Deleuze, G.・Guattari, F.(저), 김재인(역),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새물결, 2001.
Descartes, R.(저), 김종호(역), 『방법서설』, 서울: 을유문화사, 1995.
Feuerbach, Ludwig(저), 강대석(역), 『기독교의 본질』, 파주: 한길사, 2008.
Feuerbach, Ludwig(저), 강대석(역),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 파주: 한길사, 2006.
Freud, S.(저), 임홍빈・홍혜경(역), 『정신분석 강의』, 파주: 열린책들, 2015.
Freud, S.(저), 이윤기(역), 「토템과 타부」, J. Strachey ed., 『종교의 기원』, 서울: 열린책들, 1997.
Gennep, Arnold(저), 全京秀(譯), 『通過儀禮』, 서울: 乙酉文化社, 1985.
Hjelmslev, L.(저), 김용숙・김혜련(역), 『랑가쥬 이론 서설』, 서울: 동문선, 2000.
Küng, H.(저), 정한교(역), 『왜 그리스도인 인가』, 왜관: 분도출판사, 1998.
Nietzsche, Friedrich Wilhelm(저), 박찬국(역), 『아침 놀』, 서울: 책 세상, 2014.
Nietzsche, Friedrich Wilhelm(저), 김정현(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니체 전집 14』, 서울: 책세상, 2002.
Nietzsche, Friedrich Wilhelm(저), 강수남(역), 『권력에의 의지』, 서울: 청하출판사, 1998.
Nietzsche, Friedrich Wilhelm(저), 정성호 번역센터(역),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오늘, 1993.
Schopenhauer, Arthur(저), 홍성광(역),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서울: 을유문화사, 2015.
Spinoza, Baruch De(저), 강영계(역), 『에티카』, 파주: 서광사, 2007.
Wittgenstein, Ludwig(저), 이영철(역), 『철학적 탐구』, 서울: 서광사, 2002.
Wittgenstein, Ludwig(저), 이영철(역), 『논리・철학 논고』, 서울: 천지, 2000.

공헌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을 통해 본 부활」, 『한국조직신학논총』 47, 2017.
공헌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을 통해 본 신정론 비판」, 『한국조직신학논총』 42, 2015.
김대욱, 「임당 고총의 축조와 그 장제」,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김은경, 「신라 적석목곽묘 상장의례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김재현, 「스피노자주의 지질학자 옐름슬레우」, 『人間과 思想』 24, 2012.
김종일, 「한국 선사시대 여성과 여성성」, 『한국고고학보』 78, 2011.
김종일, 「고고학적 범주화의 철학적 탐구」, 『고고학』 7: 1, 2008.
김종일,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고학』 5: 2, 2006.
박경민, 「사회진화담론과 이원론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무문토기시대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111, 2021.
박경민, 「섬 공동체 변동의 고고학적 연구: 제주도 선사취락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송호인, 「묘역부가지석묘: 청동기시대의 의례·상징 매체」,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우정연,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의 몸과 체화: 유교 문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111, 2018.
우정연,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사회 최대화 전략에 대한 행위이론적 고찰」, 『한국학연구』 65, 2018.
우정연, 「영미 젠더고고학의 최신 동향: 체화(embodiment)와 성적 관행(sexuality)을 중심으로」, 『漢江考古』 4, 2010.
이상길, 「祭祀를 통해 본 權力의 發生」, 한국고고학회(편),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 3, 서울: 사회평론, 2007.
이상길, 「제사와 권력의 발생」, 한국고고학회(편),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2006.
李相吉,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硏究」,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이서규, 「쇼펜하우어의 표상개념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88, 2003.
이영철, 「비트겐슈타인과 철학의 새로운 길」, 『哲學』 118, 2014.
이영철, 「종교적 믿음과 언어: 비트겐슈타인의 종교관」, 『哲學硏究』 102, 2013.
이하우, 「한국 선사암각화의 제의표현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최태명, 「칸트의 표상」, 『민족미학』 12, 2013.
하영미, 「비트겐슈타인의 종교관과 철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Deleuze, Gilles · Guattari, Félix,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Eliade, Mircea, *Images and Symbo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Eliade, Mircea, *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85.

Eliade, Mircea,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lated by Rosemary Shee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8.

Heidegger, M., *Vorträge und Aufsätze*,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2000.

Heidegger, M., *Sein und Zeit*,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77.

Hodder, Ian, *Symbols in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Kant, I.,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56.

Whitehead, A. N.,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24일에 투고되어,
2022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1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1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Philosophical Concepts in Korean Archeology

Kong, HunBa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s, which are shown in the archaeological community of Korea. By doing this, we can criticize these in an objective position as regards philosophy, we can provide for an alternative.

In the archaeological community of Korea, we recognize that relics or remains have been examined by philosophy in an ideological way. Interpretation like this can be faced the objective criticism by philosophical study. In addition, a possible difficulty arises because of the gap among academics. Oriental and western philosophy need to be objectively studi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will help us to consider how to combine archaeology with philosophy.

This paper revealed 'The philosophy of will' be the right balance between them. For example, the first is the will that archaeological layer has through the study of philosophical strata. the second things are the will to live shown relics or remains in archaeology, elitist will which exposed 'valuable things', selfishness by group based on 'selfish gene' and the will for power which is shown practice of ritual. The study found that 'The philosophy of will' has the chance to play a role as contact point between archaeology with philosophy.

[Keywords] Philosophical Archaeology, Philosophical Strata, Representation and Will, Category, Semiotics

* Korea University